

율곡 이이의 시인식과 시세계의 특징

고명신*

<차 례>

1. 머리말
2. 율곡의 시인식
3. 율곡 시세계의 특징
 - 3.1 일상사의 형상화 시각
 - 3.2 경험적 진실성의 추구
 - 3.3 현실자각과 개혁의식의 표출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사람을 대표하는 율곡 이이의 시인식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 그의 문학관 및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율곡의 문학관은 문이재도론에 기초한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향의식인 ‘존심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시관을 시선집 『정언묘선』을 통해 직접 서술하기도 했다. 그는 시를 인간의 말 가운데 정수라고 하여 시의 위상을 매우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충담소산’과 ‘우유충후’를 시가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품격으로 들고 있다.

율곡은 『시경』의 시에 대해 ‘인정에 곡진하고 사물의 이치에 두루 통달하며 우유충후하여 성정의 바름에 귀착된다.’고 하여 시를 효용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시로써 수기·치인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유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주기론적 사고에 입각하여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이라는 ‘문이형도’의 차별화된 문학관

* 강릉원주대학교

을 피력하기도 했다.

율곡의 이러한 시인식을 그가 남긴 작품 속에서 규명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적 면모로 나타난다.

첫째, 범속한 일상 생활세계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등장시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념적이거나 고답적이지 않은 형상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대 사대부 사회에서 세속적이거나 경미한 대상으로 취급되던 일상사를 시적으로 수용하여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유가적 생활 태도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전고의 활용이나 관념적 추상적 이미지를 흔히 활용하는 당대 시작 풍토로부터 탈피하여, 외물의 구체적 현상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현장감을 부각시키는 형상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경험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율곡의 가치의식과 맞닿아 총담소산과 같은 담박함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당대 사회상황이나 역사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완곡하게 돌려 말하거나 관념화시키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직설적 화법을 통해 형상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지와 함께 지배계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경세 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율곡의 시인식은 근본적으로 현실의 삶에 근간한 것으로서, 그는 시작에 있어서 당대 시단의 보편적인 흐름과는 달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나 외물의 구체적 현상 및 현장감이 강조된 경험적 진실성을 보다 중시한다. 그리고 당대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 개혁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화함으로써 시가 갖는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율곡의 시인식과 시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양상과 특징들은 근대적 사실주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뿌리깊게는 그가 추구한 주기론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 율곡, 문학관, 지향의식, 시세계, 문이재도, 문이형도, 정언묘선, 충담소산, 우유충후

1. 머리말

율곡 이이(栗谷 李珣 · 1536~1584)가 생존·활동했던 16세기는 문학을 통해 도를 구현한다는 사림파의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에 입각한 성리학적 문학관이 보편적인 문학론으로 자리잡았던 시기였다. 율곡 역시 16세기 사림을 대표하는 학자요 문인으로서, 도학으로써 당대 혼란스러운 사회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장했으며, 문학을 통해서 도를 구현하고자 했던 점에서는 당대 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율곡은 자신의 시관(詩觀)을 시선집인 『정언묘선(精言妙選)』을 통해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시를 인간의 말 중에 정수라고 하여 시의 위상을 매우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충담소산(沖澹蕭散)’과 ‘우유충후(優柔忠厚)’를 시가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품격으로 들고 있다. 이는 시는 성정에 근본해야 한다는 도본성정(道本性情)의 시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대 사림파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미의식과 같은 선상에 있는 품격이라 할 수 있다.

율곡의 시인식이나 시세계의 특징에 관한 기존논의는 크게 세 갈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이재도론에 입각한 율곡의 시관을 도학과 관련지어 논의한 작업, 『정언묘선』의 분석을 통해 율곡의 시인식과 품격을 논의한 작업, 율곡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을 논의한 작업이 그것이다.

먼저, 문이재도론에 입각한 율곡의 시관을 도학과 관련지어 논의한 작업의 경우는, 율곡이 문학의 존재양상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도의(道義)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성향을 함께

지녔다는 논의¹⁾, 유가에서 추구하는 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측면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데 율곡 문학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²⁾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언묘선』의 분석을 통해 율곡의 시인식과 품격을 논의한 작업에 있어서는, 율곡의 시인식이 자연미와 함께 인간적 현실을 초탈한 고답적 순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논의³⁾, 율곡의 심미이상이 인간의 정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자신과 국가를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고 파악한 견해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율곡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을 논의한 작업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시관에 말미암은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규명한 작업과 시세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작업이 그것이다.

율곡시의 미학적 특성을 규명한 작업의 경우, 「고산구곡가」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형사억제(形似抑制)에 의한 담박미(淡泊美)로 규명한 논의⁵⁾, 율곡을 위시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는 정감보다는 성정을 형상화한 이른바 성정미학(性情美學)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논의⁶⁾, 율곡의 충담(沖澹)에서 맛볼 수 있는 미인 담박의 담(淡)은 농(濃)을 완벽하게 융화시킨 예술적 성취에서 온 풍격이라고 한 논의⁷⁾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조동일, 「이이」,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99.

2) 이종호, 「유교의 문학관과 미의식-이황의 문장론과 이이의 도문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3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학논집』제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4) 김풍기, 「『정언묘선』에 나타난 율곡의 심미이상」, 『어문론집』제30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1.

5) 최진원,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6) 이민홍, 「조선 전기 자연미의 추구하고 한시-성정미학과 산수시」, 『한국한문학연구』제15집, 한국한문학학회, 1992.

7) 최동국, 「조선조 중엽의 시조와 담의 미- 퇴계와 율곡의 평어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18, 한국시조학회, 2002.

율곡의 시세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작업의 경우는, 율곡의 시가 근본적으로 수기·치인·우시연군(憂時戀君)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불교적 소양이 그의 학문적 세계의 폭과 깊이에는 물론 시세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견해⁸⁾, 율곡의 시가 우유충후와 충담 소산 등 사림과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한 미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氣)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인해 현실을 중시하고 허구를 배제하는 기실적(紀實的) 시세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견해⁹⁾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율곡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는 그의 사상과 결부시킨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언묘선』을 근거로 시의식이나 품격을 논의하기도 하고, 시세계를 포괄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특징을 살핀 경우가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율곡의 시 작품을 중심에 놓고서 그의 시인식과 시세계의 특징을 집중 조명한 작업은 적이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6세기 사림을 대표하는 율곡의 시인식이 실제 작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 그의 문학관 및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율곡의 시는 『율곡전서(栗谷全書)』¹⁰⁾ 권1·권2에 실려 있는 316수, 「습유(拾遺)」에 실려 있는 192수, 「쇄언(瑣言)」에 실려 있는 6수, 「서(書)」에 실려 있는 1수를 포함하여 모두 515수의 작품이 전해진다. 본고는 이 515수를 일차 논의 대상으로 삼되, 율곡이 지향한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펴기로 한다.

8) 정향교,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율곡의 한시에 나타난 유·불교」, 『율곡사상연구』 제3집, 율곡학회, 1997.

9) 홍학회,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1.

10) 『栗谷全書』(영인본: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2. 율곡의 시인식

율곡은 체계화된 문학론을 전개하여 16세기 사단(詞壇)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그의 『정언묘선』은 후학들에게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으며, 품격론을 전개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율곡은 도와 문의 관계와 바람직한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가 나타난 것이 문이니 도는 문의 근본이요, 문은 도의 말단입니다. 근본을 얻음으로써 말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현의 문이요. 그 말단만 일삼고 근본은 일삼지 않는 것은 속유의 문입니다.¹¹⁾

율곡은 문학은 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무엇보다 내적인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지 않고 사기(士氣)의 화순함이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외경내(重外輕內)·완물상지(玩物喪志)할까 두려워 글짓기를 단념한다고 하기도 했는데¹²⁾, 이는 그가 일차적으로 도문합일론(道文合一論)의 입장에서 도학과 일치하는 시문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문학(시)에 대해 『정언묘선』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사람 소리 가운데 정수가 말이고, 시는 말 가운데 또한 정수다.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둔 것으로서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음의 고향하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 (중략) 어떤 시는 문식을 빌어다가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것이 많다. ¹³⁾

11) 竊謂道之顯者 謂之文 道者 文之本也 文者 道之末也 得其本而末在其中者 聖賢之文也 事其末而不業乎本者 俗儒之文也 : 「文策」, 『栗谷全書』拾遺 卷6

12) 但以信道未篤 而先事於文 和順未積 而先發英華 則其不幾於重外而輕內乎 其不幾於玩物而喪志乎 以此絕意於爲文 而有所悔吝 : 「與宋頤菴」, 『栗谷全書』拾遺 卷3 書下

13) 人聲之精者爲言 詩之於言 又其精者也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聲音高下 出於自然 (중략) 或假文飾 務說人目者多矣 : 「精言妙選序」, 『栗谷全書』卷13

이 「원자집」에 선발된 것은 충담소산을 주로 한 것이다. 꾸밈을 일삼지 않음이 자연스러움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다.¹⁴⁾

율곡은 시를 ‘말 가운데 정수’라고 하여 인간의 정신적·정서적 표현 산물, 즉 문학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둔 것’이라 하여 내적인 수양에 의한 성정의 발현을 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성정이 전제되면 ‘성음의 고하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라고 하여 시를 성정미학¹⁵⁾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시는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식을 빌어다가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풍조가 팽배해졌음을 통탄한다. 충담소산한 시를 읽으면 ‘꾸밈을 일삼지 않음이 자연스러움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시인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표현 면에서는 인위적인 수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명예욕 등 세속적인 욕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순수한 표현론과 도덕적 효용론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율곡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조동일은 “표현보다는 이치가 중요하고 표현이 성행하면 이치는 막히지만 이치가 선행하면 표현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치는 마음에서 얻는 바이고 마음에서 얻는 바가 갖추어지면 이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표현 그 자체는 남에게 자랑하는 재주이고 재주를 자랑해서는 진실성이 없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¹⁶⁾고 했다.

나아가 율곡은 시의 효용성을 사회적·정치적 측면으로까지 확대시켜

14) 此集所選 主於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 : 「元字集序」, 『精言妙選』卷1

15) 성정미학에 관해서는 이민홍이 조선 전기 한시를 대상으로 ‘성정미학(性情美學)’과 ‘사회미학(社會美學)’이라는 주목되는 두 갈래의 미의식이 존재했다고 논의의 편 바 있다. (이민홍, 앞의 「조선전기 자연미의 추구하고 한시-성정미학과 산수시」, 107면 참조.)

16) 조동일, 앞의 「이이」, 157면 참조.

인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율곡의 시인식은 다음의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경서를 찬술하실 때 시를 그 첫째로 두어 세도의 성쇠와 국운의 치란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그 때문에 정아·변아·정풍·변풍이 지어지게 되었으니,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미의 글귀는 능히 학질을 떼었고 소주의 절구가 능히 강과를 멈추게 하였으니, 시가 능히 귀신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율곡은 시의 중요한 역할로 ‘세도의 성쇠와 국운의 치란을 살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정아(正雅)·변아(變雅)·정풍(正風)·변풍(變風)의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풍자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화하는 수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율곡은 『시경』의 모시서(毛詩序)의 말을 인용하여 ‘시는 귀신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효용성의 극한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니, 시에 대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을 것이다. 율곡은 수교와 행도의 조화를 주장했던 실천적인 정치가로서, 수기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측면으로까지 시의 효용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율곡의 시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문이형도(文以形道)’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문학)에 대한 일반 사대부들의 논의와는 차별화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은 살피옵건대,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이옵니다. 사서와 육경에 이미 밝고 또 구비되었으니, 글로써 도를 구하면 이치가 다 나타날 것이옵니다.¹⁸⁾

17) 是故 聖人之述經也 詩居其一 而于以見世道之盛衰 國運之治 而正雅變雅正風變風之所以作也 則詩之可以感乎人者 可知也 且子美之句 能去瘡疾 蘇州之絕 能止江波 則詩之可以感乎鬼神者 亦可知也 : 「仁物世稟序」, 『栗谷全書』拾遺 卷3

18) 臣按 道妙無形 文以形道 四書六經 既明且備 因文求道 理無不現 : 「聖學輯要序」, 『栗谷全書』卷19

율곡은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이라 하여, 도의 형상화 시각에 주목한다. 문이재도론이 도를 실은 문이어야만 참된 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과 도의 관계를 본말(本末)의 관계, 즉 인과적이고 반영론적으로 규정했다면, ‘문이형도’의 관점은 문과 도의 관계를 자연적인 관계로서 재정립한다. 여기에서 ‘자연적’이라 한 것은 문과 도의 관계를 문의 형상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치’가 구현된다는 동시적 발생의 관계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¹⁹⁾

이러한 시각은 문학이란 도를 실는 그릇이라고 한 ‘문이재도’, 도를 깨는 그릇이라고 한 ‘문이관도(文以貫道), 도를 밝히는 그릇이라고 한 ‘문이명도(文以明道)’와 같은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해석으로, “문학이란 사상의 형상화로서 추상적 사상을 구체적 형태로 형성시키는 것이 문학이요, 철학적 논리를 예술적 형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문학”²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도’라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경향에서, 문이란 도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사물이나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게 된 것인바, 종래의 견해에서 진일보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형이상(形而上)’의 높은 정신적 진리는 ‘형이하(形而下)’의 구체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떠난 것이라면 오히려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주기론적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시에 형상화되어야 할 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책(文策)」과 「문무책(文武策)」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데²¹⁾, 그는 도를 현실세계와 무관한 관념의 세계에서 찾지 않고 육행, 육덕, 육예로써 현실의 일용행사에서 찾는다. 율곡에게 있어서 학문과 문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19) 최문형, 「율곡의 주기론적 문학관과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20) 심성섭, 「해제」, 『국역 율곡전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21) 思昔周室之盛也 以鄉三物 教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二曰六行 三曰六藝 : 「文策」, 『栗谷全書』拾遺 卷6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대는 율곡 스스로 개혁이 시급한 경장기로 파악했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율곡이 성리학의 도학적 성격을 문에 접목시킨 것은 조선 왕조가 처하게 될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예견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문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율곡의 시인식이자 문학관은 문학을 사대부의 교양이나 취미로 보는 사장파들의 문학관과 과거제도의 폐단을 비판함으로써, 문풍을 바로 잡아 도덕적 질서와 지배층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율곡은 도의 구현을 통한 이상사회 구현을 꿈꾸었던 학자요 문인으로 서, 그의 시인식은 근본적으로 수기·치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시인식의 세부를 이루는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강렬한 자각은 당대 사대부들과는 적지 차별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율곡 시세계의 특징

3.1 일상사의 형상화 시각

율곡이 생존·활동하던 당대의 시인들은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시대적 경험이나 관념적 세계를 즐겨 다루었는가 하면 이국적 정취 또한 즐겨 다루었다. 그러나 율곡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세계를 중시하여 당대 사대부사회에서 세속적이거나 경미한 대상으로 취급되던 평범한 일상을 적극적으로 시 속으로 끌어들인다.

「感寒疾 調于密室 有感寄浩原」²³⁾ 「감기를 앓아 골방에서 조리하면서

22) 조동일, 앞의 「이이」, 190면 참조.

느낀 바가 있어 호원에게 부치다」

病中省人事	병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灑掃清幽室	골방을 깨끗이 청소 하였네.
小鑪對焚香	작은 화로를 대하여 향을 피우며
明窓坐終日	환한 창가에 온종일 앉았다가,
意到輒開卷	생각이 나면 책을 펴보고
倦來還掩帙	싫증나면 도로 덮어버린다오.
計往積尤悔	지난 일 헤아리면 허물과 뉘우침 뿐
追來庶無失	앞으론 그런 잘못 없도록 하려네.
(후략)	

이 시에는 작가의 특별할 것도 없는 소소한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①감기를 앓은 후 기운이 나자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 ②작은 화로에 향을 피운다. ③창가에 앉아 책을 폼다 덮기를 반복한다. ④지난날을 더듬어 반성해 본다. 율곡은 자신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시간적 경과라는 순차적 전개를 통해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 그려진 방을 청소하고, 화로에 향을 피우고, 책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전개되는 생활의 단면들로서, 결코 극기적이거나 투쟁적인 학문수양의 모습이 아니다.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내용전달에 충실한 일상사의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작가는 이 시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어떤 가치의식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율곡은 이 시에서 전통적으로 유가가 지향해 온 일상에서의 도의 실천이라는 성리학적 가치의식, 즉 다소 이념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힘주어 설파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독자와의 객관적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목소리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귀 기울이게 한다.

율곡 시의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그의 도학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와

23) 『栗谷全書』 卷2 詩下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율곡은 「응지논사소(應旨論事疏)」에서 “도란 높고 먼 것이 아니라 오직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이는 그것을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이는 거기에 대하여 힘이 약함을 걱정하며 감히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합니다.”²⁴⁾라고 하여, 일상을 떠난 도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서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사의 보여주기 즉 내용전달을 중시하는 율곡의 시적 경향은 제목에서 더욱 부각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의 시에는 다른 시인과 차별되는 장문의 제목²⁵⁾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金汝器(偉) 以敬差官 訪余于南江 其明日復來江上 船邀余同載 余與季獻載琴小船 風潮逆至 舟不得渡 望見有作」²⁶⁾

「김여기 (위)가 경차관으로서 남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 다음날 강가의 배로 다시 찾아와 나를 맞이하여 함께 태우니 내가 계현과 더불어 작은 배에 다 거문고를 실었지만 바람과 조수가 거슬러 이르니 배로 건널 수 없어서 멀리 바라보다가 짓는다.」

一葉載玉軫	조각배에 거문고 싣고
相期天上郎	천상의 선랑仙郎과 기약했건만,
風潮阻柔櫓	바람 조수가 노를 방해하므로
悵望烟蒼茫	아스라한 연기만 쓸쓸히 바라보네.

이 시는 김위의 방문을 받고 아우 계현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은 시이다.

24) 道非高遠 只在日用 而或意其至難 或憂其力弱 莫敢下功焉 : 「應旨論事疏」, 『栗谷全書』卷6 疏筭4

25) 「金君德器大司成 金公湜之第三子也 氣度倜儻不凡 不事生產 隱居麋鹿村 兄弟相樂也 有詩曰可笑吟 人有示余者 余慕其爲人 爲之次韻 欲使名聞于後世也 麋鹿村距吾卜居數里 金之歿 今若干年」: 『栗谷全書』卷1 詩下 ; 「承命召以大諫 珥赴徵 將以慰上在疚 兼得謝恩而歸 留京一月 竟未得面對 乘舟西下 感懷有作 書寄浩原」: 『栗谷全書』卷1 詩下

26) 『栗谷全書』卷2 詩下

이처럼 율곡의 시에는 제목만 보아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당시의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시의 제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적 생활의 구체적인 기록, 일종의 간단한 메모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시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의 정황을 제목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시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정감을 압축시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에는 한 시의 율격구조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율곡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살림에 관심을 가졌던 목민가였다. 그렇기에 작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일상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宿鳥嶺」²⁷⁾

「조령에서 유숙하며」

登登涉險政斜暉
小店依山汲路微
谷鳥避風尋樾去
村童踏雪拾樵歸
羸驂伏櫪啖枯草
倦僕燃松爨冷衣
夜久不眠羣籟靜
漸看霜月透柴扉

험한 길 오르다 보니, 어느새 석양이라
산 밑 작은 주점에 물 나르는 길도 희미하네.
골짜기 새는 바람 피해 숲 찾아가고
마을 아이는 눈 밟으며 땔나무 주워 가며,
여윈 말은 마판에 누워 마른 풀 씹고
게으른 종은 숯불 피워 차가운 옷 다리누나.
깊은 밤에 잠 안 오고 만뢰가 고요한데
차가운 달만 점차 사립문에 스며드네.

이 시는 어느 산골마을 겨울밤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겨울 산골마을에 새가 둥지를 찾아 날아들고 아이는 땔나무를 주워간다. 그리고 어느 집 종은 숯불에 옷을 다리고 여윈 말은 마구간에서 마른 풀을 뜯고 있다.

겨울밤 산골 서민들의 일상적이면서도 고단한 생활상을 사소한 것 하

27) 『栗谷全書』卷1 詩上

나 놓치지 않고 그려낸 것으로서, 마치 한 폭의 민화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깊은 밤 홀로 잠 못 이루고 차가운 달과 벗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과 ‘고요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만뢰’의 소리가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독자로 하여금 담담하면서도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곡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힘주어 설파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는 일상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나가는 형상화 방식, 즉 이념적이거나 고답적이지 않은 형상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 그 의미를 새기고 느낌을 갖게 하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편들에 보이는 모습들은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이처럼 율곡의 시는 당대 사대부 사회에서 세속적이고 경미한 대상으로 취급되어 도외시되던 범속한 일상을 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유가적 생활태도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데 시세계의 특징과 의의의 일단이 놓여 있다 할 것이다.

3.2 경험적 진실성의 추구

율곡의 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적 면모로서, 외물을 제재로 한 시편들이 보여주는 형상화 방식을 들 수 있다. 율곡은 우선 시적 정서의 출발을 외부적 원인에 두고 외물의 구체적인 현상에 주목한다.

다음은 연꽃을 소재로 하여 지은 작품이다.

「風月樓 雨中賞蓮, 次韻」²⁸⁾ 「풍월루에서 빗속에 연을 감상한 데 차운하다」

(전략)

芙蓉滿綠渠	푸른 연잎은 도랑에 가득하고
密雨隨風時	소낙비는 바람 따라 쏟아지네.

28) 『栗谷全書』拾遺 卷1

勢若風流陣	그 형세 마치 풍류진 놀음에서
靚粧相娛嬉	미인들 화장하고 서로 유희한 것 같구려.
明珠走的皦	희고 고운 밝은 구슬은 연잎에 구르고
翠蓋還敲危	푸른 일산 연잎은 곁으로 기우네.
晩色有令姿	저녁 경치에 자태가 더욱 아름다와
探玩吾非癡	감상하는 나 역시 어리석음 아니로세.
安得踵濂溪	어쩌면 주렴계의 뒤를 이어
卒歲忘歸期	한 평생 좋은 벗으로 삼을고.

위 시의 경우 「애련설(愛蓮說)」의 주렴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시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시의 경우, 시인의 감흥은 직접 본 바 외물의 현상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써, 율곡 자신이 말한 바 “조용히 스스로 얻는 것이 우흥(寓興)에서 나왔으므로 사색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²⁹⁾라고 한 바로 ‘출어우흥(出於寓興)’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눈앞에 보이는 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미인들 화장하고 서로 유희한 것 같구려.’라고 즉물적인 느낌을 표현해 냈을 뿐이다.

이처럼 율곡은 당대 시단에서 대체로 관념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던 연³⁰⁾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사실적인 면을 중시하여 현장감을 부각시키는 형상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한여름 소나기를 맞아 생기 넘치는 연꽃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개성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는 시작에 있어 전고의 활용이나 시인의 도학적 주관에 의한 재해석을 지양하였는데, 부득이 이국적인 제재나 전고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현재의 삶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을 때 사용된다. 물론 위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주렴계의 뒤를 이어 한평생 좋은 벗으로 삼을고’라고 하여, ‘연꽃=좋은 벗’이라는 관념을 떠올림으로써 관념적인 기술의

29) 從容自得 出於寓興 非思索可到 : 「亨字集序」, 『精言妙選』卷2

30) 대표적인 예로 주렴계가 「애련설」을 지은 이래로 연꽃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시에서는 연꽃을 개성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주렴계의 시각으로 그려내는 시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꽃은 탁한 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과 또 줄기의 속이 비어 있는 속성에 주목하여 연꽃의 아름다움을 ‘청아’ 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후 연꽃의 미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태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고의 활용을 통한 아화(雅化)적 효과를 중시했던 당대 의고시파와는 달리, 율곡은 기교주의·모방주의에서 벗어나 개성의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아래의 시는 율곡이 오대산에 머물면서 쓴 작품이다.

「遊南臺西臺中臺 宿于上院」³¹⁾ 「남대·서대·중대에서 노닐고 상원사에서 묵다」

洞壑媚新晴	깊은 산골에 날씨 활짝 개었는데
巖流清有聲	바위에 흐르는 물소리 맑기도 하구나.
五臺引興深	오대산 간 데마다 흥취에 끌리어
苔逕芒鞋輕	이끼 길에서도 발걸음 가볍다.
攀蘿凌絕頂	다래 덩굴 휘어잡고 절정에 오르니
白雲生翠屏	흰 구름 푸른 벼랑에 피어 일고,
俯覽衆山小	웅기중기 작은 산들을 굽어보니
浩浩煙樹平	여기저기에 연기 낀 나무들이 편편하네.
冷冷石竇泉	돌 틈에 흐르는 차가운 샘물
一飲遺世情	한 번 마시니 세상일 다 잊고,
禪房坐蒲團	선방에서 포단자리에 앉으니
灑落魂夢清	상쾌한 기분 꿈마저 맑구려.
晨磬發深省	새벽 종소리에 깊은 반성 떠 일어
澹澹吾何營	담담한 심정 나도 무어라 말 못하겠네.

남대, 서대, 중대를 차례로 오르면서 그저 등산길에 만난 경물들을 보이는 현상에 충실하여 객관적·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는 ‘바위’, ‘이끼’, ‘흰 구름’, ‘다래 덩굴’, ‘벼랑’ 등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사물들로서, 상징·비유·관념같은 그 어떤 추상적인 의미도 부여받고 있지 않다. 단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의 하나로서, 작가는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사물들을 보이는 그대로 객관적·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담박함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바로 율곡이 추구하는 제1의 품격인 ‘꾸밈을 일삼지 않

31) 『栗谷全書』卷1 詩上

음이 자연스러움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다'고 한 '충담소산'의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³²⁾ 율곡은 이 시에서 외물의 자연스러운 보여주기만으로도 시가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리학에서 다루는 우주적 질서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사색, 즉 인위적인 사색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서정의 표출에 있어서 애써 공졸(工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성정을 자연스럽게 읊조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서 표출의 자연스러움은 그의 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적 지향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시인식이 근본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도학적 색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가 “성정미학의 좌과썰미 자리한다.”³³⁾고 하는 견해도 이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율곡 시의 이러한 면모와 관련하여 “시는 뜻을 말한 것이라는 시언지의 효용론이 아닌 표현론적 수용”³⁴⁾이라는 견해 또한 이와 상통한다.

작자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선방에서 포단자리에 앉으니 상쾌한 기분 꿈마저 맑구려. 새벽 종소리에 깊은 반성 떠 일어 담담한 심정 나도 무어라 말 못하겠네.'라고 자신의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출어우흥'의 경지로서, 경물의 모습에서 시인의 흥취가 저절로 촉발된 것이기에, 자연을 노래한 사대부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념적인 흥취와는 차별화된다.

율곡은 시작에 있어 관념적·추상적 이미지를 흔히 활용하는 당대 풍토에서 탈피하여 남대·서대·중대 그리고 상원사 등 실재하는 조선의 지명을 그대로 시에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주변경물의 묘사와 어우러져 현장감을 더해줌으로써 참신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³⁵⁾ 그러나 당시 시단

32) 此集所選 主於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 古調古意 知者鮮矣 唐宋以下 諸作品格 或不逮古 間有近體 而皆無彫琢之功 自中聲律 故竝選焉 讀此集則味其淡泊 樂其希音 三百之遺意 端不外此矣 : 「元字集序」, 『精言妙選』 卷1

33) 이민홍, 앞의 「조선전기 자연미의 추구하고 한시-성정미학과 산수시」, 120면.

34) 이종목, 「한국한시와 철학」, 『한국한시 연구』1, 새문사, 1993, 80면.

35) 비슷한 시기의 해동강서시파 시인들도 조선의 고유명사가 실제 경물의 묘사와 어

의 분위기는 “중국의 지명은 모두 문자여서 시에 들어가면 모두 아름답지만” “우리 동방은 모두 방언으로 지명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 지명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 들어가면 우아하지 못하다.”³⁶⁾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예를 들면 당대 삼당시인들의 경우에도 전라도 강진을 금릉으로, 강원도 강릉을 예성으로, 경기도 광주를 광릉으로 바꾸어 부른다든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스러운 곳의 대명사로 강남 등의 지명을 빌려와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³⁷⁾

다음 작품 역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 즉 외물의 구체적 형상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담담한 가운데 깊은 묘취가 깃들게 하는 율곡 시세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題烏原驛」³⁸⁾ 「오원역에 쓰다」

竝海數奇岩	바다와 마주한 기이한 바위 두어 개
白沙平處歇	편편한 백사장에 멈춰있네.
孤村起夕煙	외진 마을엔 저녁연기 일어나고
瘳嶺留殘雪	양상한 고갯마루엔 늦 눈이 남아있네.

邨犬吠柴門 마을 개는 사립문에서 짖고

우리져 흥취를 유발하거나, 생경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어 참신한 의경을 창출함으로써 진부한 시어와 의경에 식상해 있던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종목, 『해동강서시과 연구』, 태학사, 1995, 308~309면 참조)

36) 趙持世常曰 我國地名 入詩不雅：許筠, 『惺叟詩話』

世謂中國地名皆文字 入詩便佳…我東皆以方言成地名不合於詩：洪萬宗, 『小華詩評』

37) 백광훈(白光勳), 이달(李達)과 더불어 삼당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최경창(崔慶昌)의 시이다. 봉은사의 탈속적 세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미지나 형상화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탈속의 경지를 노래하여 당시와 같다는 평을 받았다.(許筠, 『國朝詩刪』)

「俸恩寺僧軸」	「봉은사 스님에게 축하다」
三月廣陵花滿山	삼월 광릉엔 산에 꽃이 만발하고
淸江歸路白雲間	개인 강은 돌아오는 길 따라 흰 구름 속인데,
舟中背指奉恩寺	배안에서 등 뒤 봉은사를 가리켜 보니
蜀魄數聲僧掩關	소쩍새 지저귀는 소리에 스님은 사립을 닫네.

38) 『栗谷全書』拾遺 卷1

數家依古木	몇 채의 집은 고목 곁에 있네.
荒田半嶺橫	묵은 밭은 고개 중턱에 비껴 있고
細逕緣溪曲	오솔길은 시냇물 따라 구불텅하네.

銀蟾出海時	은빛 달이 바다에 떠오르자
宿鳥棲初定	새들도 보금자리 찾아 막 조용하건만,
孤客不能眠	외로운 길손은 잠 못 이루고
風泉滿清聽	바람곁에 샘물소리만 온통 맑게 들리네.

여행도중 접한 오원역 주변 마을의 정경을 그린 시이다. 율곡은 이 작품에서 바위, 백사장, 저녁연기, 고갯마루, 마을 개, 고목, 묵은 밭, 오솔길, 은빛 달의 모습 등, 다양한 사물들의 모습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현장 그대로의 모습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 객관적·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작가는 흥취의 원인인 외물의 현상을 어느 것 하나 간과하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마을의 특정 사물의 모습에 경도시키지 않고 마을 전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상화 방식은 자신의 경험을 독자로 하여금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체험하도록 돕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물들은 독자적으로 의미의 비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의 한 부분으로서 사물 전체가 연합하여 거시적 구조 안에서 오원역 주변 마을에 대한 감흥을 흥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시인의 정서는 독자적 사물에 의한 수직적 상승, 즉 직렬적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들로 이어지는 수평적 확장, 즉 병렬적 구조를 띠게 됨으로써, 사물들의 총체적인 연합에 의해 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결구에서 마을풍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정서를 서술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는데, 이 시에서 마지막 두 행은 마을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주관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평설로서, 전체의 결동(結調) 노릇을 한다. 그러나 이때 작가의 주관은 앞에서 제시한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사실성을 아울러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의 이와 같은 시편들에서 그려지는 경물들은 작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장감이 부각됨으로써 ‘묘사적 진실성’³⁹⁾을 확보하게 된다. 작가는 경험에 의해 묘사된 정경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율곡의 시는 시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인 정서적 진실성 또한 간과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율곡 시세계의 이러한 면모는 경험적 진실성을 중시하는 그의 가치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의 시인식과 맞닿아 충담소산·우유충후와 같은 담박함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3.3 현실자각과 개혁의식의 표출

전통적으로 유가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본다. 율곡 역시 당대를 대표하는 유가로서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고 수교에만 매달리는 것은 유가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율곡의 시는 당대 사회상황이나 역사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려는 시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의 시에는 이러한 율곡의 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遣悶」⁴⁰⁾

「답답함을 달래며」

開邊正苦修矛戟
卒歲寧遑蓺稻粱
不是訐謀無肉食
杞人憂慮自難忘

창 들고 변방 개척 그 일도 힘겨운데
1년 내내 어느 겨를에 농사지으리.
정치하는 대신들이 없는 것도 아니건만
기인의 근심 걱정 스스로 잊기 어렵네.

이 시에서 율곡은 농민들의 피폐한 삶에 주목하여 농민들이 국방의 의

39) 조한경, 『사실주의』,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12, 100면.

40) 『栗谷全書』拾遺 卷1

무를 다하느라 생업인 농사지을 시간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창 들고 변방 개척 그 일도 힘겨운데, 1년 내내 어느 겨울에 농사지으리.’라고 하여, 농민의 삶이 피폐화 된 원인이 균역제도의 모순에 있음을 직설적 화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하는 대신’이라고 하여 특정부류를 지적함으로써, 위정자들의 각성과 아울러 실천의지까지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대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횡포와 잘못된 조세법 및 균역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율곡은 민생안정의 해법을 정치인들의 각성을 통한 올바른 정치, 즉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⁴¹⁾

다음의 시 역시 이러한 율곡의 현실 비판인식이 드러나 있는 시이다.

「次思可登天壇韻」⁴²⁾ 「목사가의 등천단운에 차운하다」 2수

雕欄碧瓦入雲高	아로새긴 난간 푸른 기와는 구름 위에 솟았는데
玉砌珠簾制作豪	섬돌이며 주렴은 제작이 호화롭다.
想得漢皇朝帝日	하마도 한황이 천제에게 조근하던 날
九霄笙鶴下仙曹	천상의 선학이 신선 무리에 내렸으리.

瞻仰穹玄德莫高	하늘의 높은 덕을 우러러보는 뜻인데
祠壇何必聘奢豪	제단을 꼭 호사롭게 만들 것이 무언가.
願言聖主遵天則	원컨대 성주께선 하늘의 법을 따르시어
至敬能追五帝曹	지극한 공경으로 오제의 도를 본받으소서.

율곡은 이시에서 역시 지배계층의 각성을 통한 검소한 생활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섬돌이며 주렴은 제작이 호화롭다.’, ‘제단을 꼭 호사롭게 만들 것이 무언가.’라고 하여 위정자들의 부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성주께선 하늘의 높은 덕을 따르시어’라고 하여 위정

41) 近年以來 政紊吏苛 賦繁役重 饑饉荐臻 疫癘繼作 壯者散之四方 弱者填於溝壑 嗷赤子 如彼棲苴 邑里蕭條 田野荒蕪 或至於百里之間 不見人煙 氣象悲涼 令人墮淚
: 「諫院陳時事疏」, 『栗谷全書』卷3 疏筭 1

42) 『栗谷全書』拾遺 卷1 詩

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으로서 덕을 강조하며, ‘오제의 도’로써 백성을 보살피기를 직설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사림은 처음에 정계에 등장하는 명분으로써 훈구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조선사림을 대표하는 학자로서의 율곡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음의 시 역시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율곡의 현실 비판인식이 잘 드러난 시이다.

「大和道中」⁴³⁾ 「대화도중」

(전략)

此室吾豈惜	내 어찌 방이 아까워 그러겠소.
兒輩依土牀	아이들이 흙 평상에 자게 되어
不忍露赤脚	맨 다리 내놓는 걸 차마 못 보기 때문이오.
請入謀諸婦	들어가 아내에게 의논해 보리다 하더니
良久乃肯諾	한 참 뒤에야 나와서 승낙을 한다.
強顏缺躬入	염치를 무릅쓰고 몸 구부러 들어가는데
舉頭頭打屋	머리를 들다가 집 천정을 들이 받았네.
夜半假寐罷	한밤중에 선 잠을 깨서 보니
衆兒喧後壁	아이들이 벽 뒤에서 떠들썩하다.
呼寒爭一衣	춥다면서 옷 하나를 서로 다투며
怨客恣罵辱	객을 원망하는 욕설이 거침없어라.
喟然却興歎	한숨을 쉬며 탄식하노니
此豈民風惡	이 어찌 풍속이 본래 나빠서이라.
何時不贏糧	언제나 식량 걱정 없는 세상 되어
到處人心朴	가는 곳마다 인심이 순박해질고.

이 시에서 율곡은 농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체험한 농촌의 피폐한 생활상을 보고 들은 대로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인의 입을 통해 ‘내 어찌 방이 아까워 그러겠소. 아이들이 흙 평상에 자게 되어, 맨 다리 내놓는 걸 차마 못 보기 때문이오.’라고 하여 시 속의 등장인물로 하여금

43) 『栗谷全書』 拾遺 卷1

직접 말하게 하는 직설적 화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때 시적 화자의 태도는 객관자적 서술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한다. 아울러 이때 등장인물이 하는 말은 일종의 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독자는 작중인물의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작중인물의 목소리까지 듣게 된다.

나아가 이 시에서 작가는 화자의 주관적 개입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객관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난한 백성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서사적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산골마을 가난한 백성의 이야기인 서사가 시의 내용의 주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시 자체를 매우 입체적으로 만들어 사실성을 부각시켜 독자로 하여금 주관적 정서에의 매몰로부터 인식적 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객관적 공감대를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끝부분의 ‘이 어찌 풍속이 나빠서이라, 언제나 식량 걱정 없는 세상 되어, 가는 곳마다 인심이 순박해질고.’라는 화자의 탄식적 어조를 통해 주관적 개입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백성의 곤궁한 살림살이를 직설적으로 전해들은 독자는 작가의 깊은 탄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고, 민생안정에서 미풍양속의 해법을 찾는 작가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상을 다룬 시가 자연인으로서의 율곡의 시라면, 이 시는 다분히 관료지향적인 시로서, 가난한 백성의 삶을 바라보는 율곡의 연민어린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율곡의 시적 경향에 대하여 “율곡의 철학은 위기의 철학이었으며, 흔들리는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서는 이상주의를 내세웠고, 위기를 바로 보고 그 자체로서 해결해보자는 데서는 이와 기는 둘일 수도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함께 지녔다.……시가 마음을 청화하게 하고 흥중의 찌꺼기를 쓸어내야 한다는 데서는 물러나서 마음속에 침잠하는 시를 요구했고, 시가 인정에 곡진하고 물리에 넓게 통달해야 한다는 데서는 나아가 세상과 부딪치는 시를 요구했다.”⁴⁴⁾고 하여, 율곡의 시세계가 침잠과 현실에의 반발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율곡의 시는 내면의 심성수양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당대 사람과 문인들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현실 비판의식과 함께 현실 개혁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면모에 주목해 볼 때, “율곡의 사상은 성리학 시대의 유학을 절정으로 끌어 올렸고, 아래로는 실학시대의 문을 열었다.”⁴⁵⁾는 논의에서 볼 수 있듯, 현실지향적·현실비판적 정신을 강조한 18세기 이후의 실학 혹은 실학정신과 상통하는 면모를 지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시에 대한 율곡의 인식이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수양이라는 소극적 차원으로부터 현실 폭로를 통해 올바른 치인의 기반을 만든다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가 갖는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여 역사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실 개혁의지와 지배계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경세지향적 성향’⁴⁶⁾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마무리

율곡은 도문합일론에 입각하여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향의식인 존심양성을 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효용가치로 보았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의 도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아울러 ‘인정에 곡진하고 사물의 이치에 두루 통달하며 우유충후하여 성정의 바름에 귀착된다.’는 『시경』의 시의식에 기반하여 시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효용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이라는 ‘문이형도’의 문학관을 새롭게 피력하기도 했다.

율곡은 시인식이자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범속한 일상을 담담하게 드

44) 조동일, 앞의 「이이」, 189-201면 참조.

45)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연구』, 문음사, 1995, 419면.

46) 우웅순, 「16세기 사림파의 내적 분화와 그 문학적 지향」, 『문학과 사회집단』(한국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93면.

러내는 방식, 즉 이념적이거나 고답적이지 않은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당대 문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개성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율곡시의 이와 양상은 학문과 삶이 곧 하나였던 실천적인 도학자로서, 일상에서의 도의 실천이라는 유가적 생활태도와 일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시에 용해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율곡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 즉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율곡의 시인식과 시세계의 특징은, 문학을 통한 도의 구현이라는 주류적 담론 아래 미의식이 관념적·추상적으로 전개되던 당대 성리학적 풍토에서, 당대로서는 도외시되던 일상을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시작에 있어 제재의 영역을 넓혀 놓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시사적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율곡은 시의 소재로서 정서를 촉발하는 외물을 그려냄에 있어서도, 외물의 구체적인 현상을 중시하여 객관적·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형상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이자 시인식은 경험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그의 주기론적 사고에 근본하는 것으로서, 충담소산과 같은 담박함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바, 이 역시 서정과 도학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라야 가능한 경지라는 점에서, 삶과 학문과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던 실천적인 도학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나아가 율곡은 피폐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물론, 지배계층의 부패상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시에 수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시가 갖는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현실 안에서의 숨은 진실을 문제 삼음’⁴⁷⁾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시인식과 시세계의 특징은 그가 당대 사대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현실 개혁의

47) 조한경, 앞의 『사실주의』, 90면.

지를 강렬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민생의 안정과 지배계층의 각성을 촉구한 경세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율곡의 시인식과 시세계의 특징적 면모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근본적으로 그의 주기론적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후대의 실학에서 볼 수 있는 근대적 사실주의의 경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문학이 갖는 시사적 위치이자 의의를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공감력과 설득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李珥, 『栗谷全書』(영인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 율곡학연구총서편찬위원회, 『栗谷學研究叢書』, 사단법인율곡학회, 2004.
- CD-ROM, 『栗谷全集』, 사단법인 율곡학회, 2004.
- 김병국, 「『정언묘선』의 문헌적 검토와 율곡의 시관」, 『서지학보』제15호, 한국서지학회, 1995.
- ,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월인, 2000.
- 김풍기, 「『정언묘선』에 나타난 율곡의 심미이상」, 『어문논집』제30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연구』, 문음사, 1995.
- 손오규, 「고산구곡가의 미적 위상」, 『한국문학논총』13집, 한국문학회, 1992.
- 심성섭, 「해제」, 『국역 율곡전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이민홍, 「조선 전기 자연미의 추구하고 한시-성정미학과 산수시」, 『한국한문학연구』제1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92.
- 이종목, 『해동 강서시파 연구』, 태학사, 1995.
- , 「한국 한시와 철학」, 『한국한시연구』1, 새문사, 1993.
- 이종호, 「유교의 문학관과 미의식-이황의 문장론과 이이의 도문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3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학논집』제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 우응순, 「16세기 사림파의 내적 분화와 그 문학적 지향」,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 조동일, 「이이」,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99.

- 조한경, 『사실주의』,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12.
- 정향교, 「율곡 이이의 시문학고」,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 「율곡 이이의 시문학연구」, 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 , 「율곡의 한시에 나타난 유·불관」, 『율곡사상연구』제3집, 율곡학회, 1997.
- 최승순, 「율곡의 한시문 연구」, 『강원대논문집』제14집, 1980.
- 최동국, 「조선조 중엽의 시조와 담의 미- 퇴계와 율곡의 평어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18, 한국시조학회, 2002.
- 최문형, 「율곡의 주기론적 문학관과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최진원, 「고산구곡가와 담박」,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6.
- 홍학회,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투고일 : 2013년 1월 3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Perception of poetic orientation of Yulgok Yi Yi and characteristics of his poetic world

Ko, Myeong-shin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poem of Yulgok Yi Yi in his works. In 『Jeongeonmyoseon』Yulgok praised poem as the essence of human language. And, he approached poem from the point of usefulness, which was similar to the position of traditional Confucianism view for self-training and governing others with poem. Furthermore, Yulgok argued his view of literature that 'as Way is formless due to its mysterious characteristics, poem is an expression of Way by means of writing'.

Such perception of poem has three distinctive features in his works. First, he embodied ordinary life by attributing poem in a natural way. Second, he stressed the specific image of objects which are seen, which means empirical authenticity. Third, he argued the aspect of awakening of the world by creating right base of ruling through criticism of reality.

Majority studies on poems of Yulgok tend to link his Taoistic idea, to introduce his poetic idea based on 『Jeongeonmyoseon』or to figure out aesthetic feature of his poetic world.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horoughly focused on his poetic world with his poetic works in the center.

Key words : Yulgok, Jeongeonmyoseon, perspective, perception,
characteristics, aesthetics

